

본문 : 요한복음 17 장 9-11 절

제목 : 경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기

1. 꽃이 저도

“꽃이 저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정호승 시인의 <꽃 지는 저녁>이라는 시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꽃을 피우듯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 사람을 향한 그리움은 꽃이 저도 계속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3 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아름다웠던 삶을 마무리 할 것입니다. 꽃이 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며 자신과 함께 3 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시진 않았지만 제자들을 자식과 같이 여기셨죠. 자식들을 남겨 두고 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 드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9 절부터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 문장에 “Ego”, 나라는 인칭대명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굳이 안 써도 괜찮은데 ego 를 사용하는 것은 이 기도를 하는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제자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제자들을 대조하며 세상이 아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3 장 16 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코스모스, 즉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를 표현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것이라 말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겐 세상이 보다 제자들 생각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극진히 생각하고 그들을 남겨두고 가는 마음이 안타까운지 알 수 있는 문장이죠.

2.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우리 말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9 절 마지막 문장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위해 빕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이라는 이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0 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한 몸과 같은 매우 긴밀한 관계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임의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니 예수님은 지난 3 년 동안 그들을 지극 정성으로 돌봐 오신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인식하는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 주변에 나의 무대 주변을 맴도는 엑스트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연(leading actor)인 것이죠. 내 회사의 동료들, 내 동네의 이웃들, 우리 교회 목장에 함께 있는 목장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면 좋으련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는 무관한 사람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그의 현재의 모습이나 하는 꼬락서니가 내 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사간 집의 이웃을 사랑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차고 문을 활짝 열어 그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무슨 일을 합니다. 그의 배려 없는 마음이 거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reaching out 하는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형제 자매, 직장 동료, 동네 사람들의 지금 모습만 보면 별로 가까이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라면 우리의 태도는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3. 피그말리온,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뤄진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잘 살펴 보십시오. 주님은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과거 완료형태입니다. 이미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제자들은 몇 시간이 못되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변화를 내다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받으실 미래의 영광을 미리 당겨와 받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이미 보고 계시고 그들이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며 그것을 간절한 기도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가 현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이라는 키프리스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성에게서 결점을 너무 보고 실망을 하여 마침내 여성을 혐오하게 되고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살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는 조각가였기 때문에 살아 있는 여성은 그 근처에 가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을 상아로 조각을 합니다. 피그말리온은 자기가 만든 조각상이 너무 아름다워 자기의 창작물과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조각상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보석으로 치장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각상을 자신의 침상에 눕히고 잠을 잤죠. 아프로디테의 축제일에 아프로디테 여신은 피그말리온의 마음을 읽고 조각상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사람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살아 있는 여자가 된 조각상과 그를 만든 조각가가 사랑에 빠져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간절한 바람과 강렬한 사랑이 현실에서 이뤄지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실수도 많이 하고 헛소리도 많이 했고, 배신도 할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그분의 신뢰와 사랑을 버리지 않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변화되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바람을 기도로 바꾸고 계십니다. 사랑은 바라고 믿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 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저것이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망스럽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 그의 가능성을 읽어낼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바람대로 그들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눈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현실 너머에 잠재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 해주는 구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상 17 장 26 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블레셋(팔레스타인)

군대가 쳐들어와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엘라골짜기에 진을 친 유다 군대를 향해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 매일 위협해 왔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가 오합지졸이라 놀려대며 40 일 동안이나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세 명의 형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먹을 것을 싸들고 전쟁터로 갑니다. 다윗은 직접 골리앗을 보았고 그가 모욕하는 말도 듣고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부탁하며 하는 말이 26 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이 보기에 유다 군대가 오합지졸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유다의 군대를 바라보았죠. 골리앗 한 명의 협박 앞에 벌벌 떨던 자기 나라의 군대가 오합지졸이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블레셋 군대를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인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40 일 동안 벌벌 떨고 있던 유다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블레셋과 맞서 용감하게 싸우게 됩니다. 유다 군대 안에 잠자고 있는 용기와 가능성을 깨운 것은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르게 보았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금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될 바람과 소망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랑은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5. 한 알의 밀알, 그리고 그 팽창력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듯,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무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제자들에게 다 맡기고 예수님은 그렇게 떠나버린다 말입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이뤄 놓으신 눈에 띄는 결과물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 체계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처럼, 몇 단계의 체계적인 제자훈련을 만들어서 수료증 주면서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도 알아 듣기 힘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들을 알려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Academia 나 Lyceum 같은 교육기관을 만든 것도 아니고 책을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사신대로 말씀하셨을 뿐이었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 예수님에게 손에 잡히는 열매는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뭘 믿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 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한 알의 밀알로 요약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요 12:24).” 지금 당장 열매는 없지만 곧 열매 맺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죠. 겨자씨 한 알은 매우 작지만 씨앗이 싹을 틔우면 빠른 속도로 자라고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씨앗이 싹을 틔울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일단 싹을 틔우면 급속으로 팽창하고 성장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열매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밀알이 되고 겨자씨가 되어 그렇게 싹어져 가려 합니다. 작은 씨앗과 같이 초라해 보이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될 때 그들이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팽창력을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죠.

6. 경이라는 세계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은 경이(wonder)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경이라는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몽주의를 뜻하는 말은 enlightenment 이지요. 빛을 비춰주어 깨닫게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말입니다. 여기서 빛은 이성을 말합니다. 이성 and 지식으로 인간은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아이들은 무지개를 보며 놀라워하고 신기롭다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무지개는 빛이 물방울에 비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니 별 감응이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아직 지식이 없어서 저런다 말할 뿐입니다. 지식이 오히려 본질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어버립니다. William Wordsworth 라는 18 세기의 시인은 “My Heart Leap Up 이라는 시에서 무지개를 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네.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아니면 차라리 죽게 해다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나의 나날들이 자연에 대한 경애敬愛로 묶여 있기를.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So is it now I am a man;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Or let me die!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	---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경이를 느끼는 아이의 그 감성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는 마음을 시인은 Natural Piety 라고 말합니다. 경이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눈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무 이유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 차고 넘치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서, 인간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우주로 넘치고 지구까지 넘쳐들어 온 것입니다. 사랑이야 말로 하나님 나라의 팽창력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말씀 천지다."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들을 경이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서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그들 안에서 보일지라도 부디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작은 씨앗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맺게 될 열매를 상상하며 기다려 줍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해 줍시다. 주님 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지를 생각하며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로 설교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훔쳐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말씀나눔>

1. 오늘 설교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와 닿았던 것을 나눠주세요.

2. 이 세상과 내 주변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경이로움으로 대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봅니다. (다음달 모임에서는 그것을 실천했을 때 느꼈던 감정들과 변화들을 나눠보도록 합니다.)